



보도시점 2024. 3. 29.(금) 10:30 배포 2024. 3. 29.(금) 07:00

한덕수 총리, 새 학기 대학가 찾아 천원의 아침밥·행복기숙사 확대 약속

- 한 총리, 고려대학교와 동소문 행복기숙사(연합) 찾아 대학생 의견 청취

- 한덕수 국무총리는 3월 29일(금), 고려대학교와 동소문 행복기숙사(연합)을 방문하였다. 이번 방문은 정부가 청년정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‘천원의 아침밥’ 및 ‘행복기숙사’ 등 대학생 맞춤형 지원 정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뤄지고 있는지 점검하는 한편, 정책 대상자인 학생들을 만나 현장 목소리를 직접 듣고자 이루어졌다.
- 한 총리는 고려대학교 서울캠퍼스 학생회관 식당에서 학생들과 함께 ‘천원의 아침밥*’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었다. 고려대는 지난해 ‘천원의 아침밥’ 참여 대학 중 가장 많은 11만 3천여 명 분의 아침을 학생들에게 제공한 대학이다.
 - * 대학생이 천 원으로 아침밥을 구매할 수 있도록 쌀을 활용한 아침 식사를 정부·지자체·대학이 지원하는 사업(‘23년 144개 대학 233만 명분 지원, ‘24년 현재 186개 대학 참여 중)
 - 학생들은 천원의 아침밥 덕분에 저렴한 가격으로 양질의 아침식사는 물론 건강한 생활 습관도 갖게 되어 만족도가 매우 높으며,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원으로 더 많은 학교에서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길 희망했다.
 - 또한, 학생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메뉴와 균형 잡힌 영양식 제공, 방학 기간 운영을 통한 아침 식습관 유지 등의 개선 의견도 제시하였다.
 - 한 총리는 “올해 정부 지원단가와 지자체 예산*이 두 배 수준으로 증가하여 학교 부담이 낮아진 만큼, 앞으로 더 많은 학교들에서 보다 많은 학생들에게 천원의 아침밥을 제공할 계획”이라고 밝혔다.

* 정부 지원금은 1끼당 '23년 1,000원에서 2,000원, 지자체 예산은 '23년 12개 광역
지자체 17억 원에서 16개 광역지자체 38억 원으로 증가

○ 아울러 지원단가 증가가 식사 품질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학생 모니터링단을
운영하고, 방학 중에도 운영을 희망하는 학교는 편의점 등과 연계하여
학생들이 방학 기간에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.

□ 이어서 한 총리는 고려대 인근 동소문 행복기숙사*를 방문하여 기숙사 시설을
점검하고, 사생실과 독서실, 체육시설 등 공용공간에서 기숙사에 거주하
고 있는 대학생들과 만나 그들의 목소리를 청취하였다.

* 행복기숙사 : 사학진흥기금 용자지원을 통해 양질의 저렴한 기숙사를 확충하여
대학생의 열악한 거주환경 개선 및 주거비 부담 완화에 기여

○ 현장에서 만난 행복기숙사 입주 학생들은 행복기숙사 입주 후 주거비
부담이 줄었다*는 점에서 가장 만족하고 있으며, 쾌적한 시설과 지하철역
과 인접한 편리한 위치 등도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.

* 동소문 행복기숙사 월 기숙사비는 약 35만원으로, 서울시 동북권 평균 월세 약 69만원
(국가통계포털 2024년 2월 40㎡ 이하 규모 기준(관리비 제외)) 대비 50.7% 저렴한 수준

○ 또한, 학생들은 앞으로 더 많은 대학생들이 주거비 부담 완화 혜택을
누릴 수 있도록 행복기숙사를 보다 많이 지어 줄 것을 건의하였다.

○ 한 총리는 “정부는 대학생이 마음 놓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
만들 책무가 있다”며, “기숙사 수용률이 낮고 주거비 부담이 큰 서울과
수도권 중심으로 기숙사가 확충될 수 있도록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”고
하였다. 한 총리는 “향후 폐교부지 등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기 위하여
시도 교육청 등 관계기관과 선제적으로 협의하라”고 관계 공무원들에게
지시하고, “지역주민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시설을 포함하는 등
지역주민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하라”고 주문하였다.

담당 부서	국무조정실 청년정책조정실	책임자	팀 장	조은강 (044-200-6332)
		담당자(기숙사)	사무관	조민규 (044-200-6335)
		담당자(아침밥)	사무관	이정훈 (044-200-6328)